



신지애



위성미

US여자오픈 골프 '코리언 파워' 과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이자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US여자오픈이 26일(한국시간) 오후 미네소타주 에디 나외 인터라켄골프장(파73·6천789야드)에서 개막한다.

1946년 시작된 US여자오픈은 LPGA 투어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할 뿐 아니라 총상금은 310만 달러에 이르고 우승 상금은 웬만한 대회보다 끝질 많은 56만 달러나 된다.

출전선수 156명은 미국골프협회(USGA)가 정한 자격을 갖춘 71명에 예선을 거친 선수를 보태 결정된다.

신지애·위성미·김미현 등

한국남자 무려 45명 출전

내일 개막...우승 56만달러

특히 지은희(22·힐라코리아)가 웨그먼스 LPGA를 제패하면서 탄력을 받은 '코리언 시스터스'는 무려 45명에 이르는 두터운 선수층이 돋보인다. LPGA투어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권을 따냈다.

1998년 맨발 투혼을 발휘하며 US여자오픈을 제패했던 박세리(31)와 2005년 72번째 홀 범키샷 비드로 극적인 우승을 일궈냈던 김주연(27)은 10년 동안 이 대회 출전권이 있다.

한국 군단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와 장타러면 빠지지 않는 안선주(21·하이마트)가 합류해 기대가 높다. 한국에서는 자신에게 놀러 2인자에 그쳤던 지은희가 먼저 LPGA투어대회 우승을 따낸 데 자극을 받은 신지애는 일제강점기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산 신데렐라' 탄생을 버리고 있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위성미(19·미국 이클립 위)는 예선을 거쳐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2003년부터 6년 연속 출전하는 위

성미는 2006년에 공동 3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다. 올해 들어 손목 부상도 나았고 독일여자오픈 6위 입상 등 차츰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사다.

김미현(31·KTF), 한희원(30·힐라코리아), 박지은(29·나이키골프), 장정(28·기업은행) 등 고참 선수들이 관록을 앞세워 출사표를 낸 가운데 '태극 자매'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선화(21·CJ), 지은희, 이지영(22·하이마트), 최나연(21·SK텔레콤), 박인비(21), 김승희(20·힐라코리아) 등 신예들도 도전장을 냈다.

우승 후보 0순위는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꼽힌다. 장타 1위(278.1야드)와 그린 적중률 1위(78.1%)에 올라 있는 오초아는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정확한 샷을 구사한다.

오초아 못지 않은 장타자인 브리타니 린 시킴(미국)이나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은 그러나 우승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US여자오픈 우승컵을 차지하려면 장타만 날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마리아 요르트(스웨덴), 청야니(대만) 등은 장타력을 갖춘데 최근 상승세가 뚜렷해 챔피언 물망에 오르고 있다. 명예로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카리 웹(호주), 그리고 작년 우승자 크리스티 커(미국) 등은 풍부한 경험으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방법을 아는 선수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독일 ▶



뢰브 감독

유로 2008 준결승 내일 오전 3시45분

화력의 독일이나, 끈기의 터키냐

'미니월드컵'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첫 준결승전인 '전차군단' 독일과 '투르크 전사' 터키의 맞대결이 26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바젤 상크트 알름 파르크에서 펼쳐진다



다. 이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4번째 정상을 노리는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이 예선 최다 득점의 화력을 또 한번 과시하는 나. 조별리그부터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8강전까지 막판 뒤집기의 끈기를 보이며 턱걸이로 4강까지 진입한 터키가 돌풍을 이어나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 터키



테림 감독

'전차군단' 화력이나 '투르크 전사' 끈기나



발라크

독일은 이번이 벌써 6번째 유로 무대 준결승이다. 유로1972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2-1로 이긴 것을 시작으로 1976년(상대 유고슬라비아), 1988년(네덜란드), 1992년(스웨덴), 1996년(잉글랜드)까지 5차례 4강전을 치렀는데 유로1988에서 네덜란드에 1-2로 진 것을 제외하고 모두 결승에 올랐다.

터키는 첫 4강 진출이다. 월드컵까지 치면 2002년 한·일월드컵 준결승에 오른 것까지 메이저대회 2번째 4강이다. 당시 세불 귀네수 현 FC 서울 감독이 이끌던 터키는 브라질을 넘지 못하고 3-4위전으로 밀려나 한국과 마지

유로 2008 4강 진출팀 전력 비교

	독일	국가	터키
요하임 뢰브	감독	파티 테림	
4-4-2	포메이션	4-4-2	
5위	FIFA 랭킹	20위	
포돌스키(3골) 발라크(2골) 클로제(1골) 슈바인슈타이커(1골)	득점자	카베제(2골) 센투르크(2골) 투린(2골)	
vs 폴란드전(2-0 승) vs 크로아티아전(1-2 패) vs 오스트리아전(1-0 승) vs 포르투갈전(3-2 승)	유로 2008 전적 조별리그 8강전	vs 포르투갈전(0-2 패) vs 스위스전(2-1 승) vs 체코전(3-2 승) vs 크로아티아전(1<3PK1>1 승)	

독일-예선 최다 득점 공격력 가동

터키-주전들 결장 정신력 재무장

막 경기를 치렀다. 객관적 전력에서 보면 독일이 한 수 위인 것만은 틀림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독일은 5위, 터키는 20위다.

역대 전적에서도 양팀은 지금까지 총 17차례 맞붙어 독일이 11승3무3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독일은 첫 대결이었던 1951년 친선경기에서 1-2로 패한 뒤 1992년까지 13경기에서 11승2무로 터키 상대 무패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3차례 대결에서 상황은 역전됐다. 유로2000 예선에서 터키는 1승1무로 앞섰고 2005년 평가전에서도 2-1로 이겼다.

아무리 전력에서 앞서더라도 독일은 터키와 준결승이 걸려올 수밖에 없다.

터키는 '스위스의 악몽'을 털어버릴 기회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터키는 당시 서독과 2차례 만났는데 모두 패했다.

한번은 베른에서 만나 4-1로 꺾였고, 두번째는 취리히



알틴토프

에서 7-2로 물러났다. 하지만 터키의 설욕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독일의 주전 멤버들이 대부분 건재한 반면 터키는 조별리그와 8강전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부상에 경고 누적까지 겹치며 기용할 수 있는 필드플레이어가 13명 밖에 남지 않았다.

터키는 특히 특히 골잡이 니하트 카베치가 장판지 부상 치료를 위해 팀에서 빠졌고, 톤자이 산리와 아르다 투란 등 주전 미드필더는 경고가 쌓여 준결승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 큰 손실이다.

“허정무호 수준 미달” 30%

축구팬 1천537명 설문

지도력 부족 23% 달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의 문제점에 대해 '총체적인 수준 미달'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축구 월드컵지 베스트일레븐이 해외 축구 전문사이트 사커라인과 공동으로 지난 9~17일까지 축구팬 1천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허정무호, 가시적인 문제점은'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9.5%에 해당하는 425명이 '객관적인 수준이 미달'이라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코칭스태프의 지도력 부족'(23%)과 '확실한 킬러 부재'(15%)

'고질적인 수비불안'(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없다'(5.6%) '느슨해진 조직력'(5.4%)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없다'(4%) '정신력 약화'(3.7%)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지원 부족'이라는 대답은 1.9%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코칭스태프의 전술과 선수들의 기량 부족을 대표팀 부진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베스트일레븐은 "허정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2010 월드컵 3차 예선과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해 총 10번의 A매치를 치르는 동안 상대를 압도하는 시원스러운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한 게 팬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프로축구 오늘 재개



그도 다시 시작한다.

그 동안 재충전을 하면서 재도약을 준비해 온 K-리그의 '젊은 피'들에게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하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박성화호에 승선할 마지막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표팀을 이끌고 다음달 7일부터 마지막 탐금질에 들어갈 박성화 감독은 25일 갑대회와 주말 K-리그를 지켜본 뒤 30일께 예비 엔트리 30명을 확정, 발표할 생각이다. 결정의 시간이 임박한 셈이다.

박성화호 승선 마지막 시험대

박 감독은 일단 25일 서울-경남전, 홍명보 코치는 성남-대구전, 강철 코치는 제주-수원전, 코사 골키퍼 코치는 인천-부산전을 직접 관전한다.

코칭스태프는 주말 K-리그 경기장도 찾는다. 박 감독은 28일 전남-수원전과 29일 울산-경남전을 잇따라 관전하고, 홍 코치는 포항-제주, 강 코치는 서울-부산, 코사 코치는 인천-광주(이상 28일)의 대결을 지켜보며 올림픽대표 후보들의 몸 상태를 점검한다.

A대표로 월드컵 3차 예선 '지옥의 4연전'에 참가했던 박주영과 이청용(이상 서울), 정성룡(성남), 강민수(전북), 오광민(울산), 이근호(대구) 등 올림픽대표 주축 멤버들도 실 틀 없이 바로 소속팀에 합류해 박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화호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

중 하나가 공격수다.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연령대인 23세 이하 '영건'들이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박 감독은 애초 와일드카드로 스트라이커를 보강하려면 계획도 바꿨을 정도다.

수원의 상승세를 이끌어온 공격수 서동현과 신영록은 25일 제주 원정에 나선다. 경남의 공격수 서상민은 경고 누적으로 서울과 갑대회 원정경기에는 뛸 수 없다.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조동건(성남)은 지난달 말 A대표팀에 발탁됐다. 오른쪽 경장이 빼 피로골절로 중도하차했지만 최근 팀 훈련에 합류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한 박성화호는 다음달 7일 소집돼 훈련을 하면서 과테말라 A대표팀(16일), 코트디부아르(27일) 및 호주(31일) 올림픽대표팀과 차례로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박성화호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

이형택 윌블던테니스 기권패

이형택(32·삼성증권)이 윌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회전에서 기권패 했다.

세계랭킹 56위 이형택은 24일(한국시간) 영국 윌블던 윌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단식 1회전에서 필립 페츨슈너(118위·독일)에 세트스코어 1-2로 뒤진 상황에서 경기를 포기했다.

1세트는 타이브레이크 끝에 7-6(4)으로 따낸 이형택은 이후 두 세트를 1-6, 4-6으로 내주며 끌려갔다.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아트와 챔피언십 1회전 경기 도중 왼쪽 무릎 인대를 다쳐 기권했던 이형택은 이날 부상 부위에 보호대를 차고 나왔지만 끝내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페츨슈너는 이날 서브 에이스를 19개나 터뜨리며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이형택을 압도했다.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도 미하엘 베레르(91위·독일)를 3-1로 꺾고 2회전에 안착했다. 조코비치는 마르틴 사핀(75위·러시아)과 3회전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됐다.